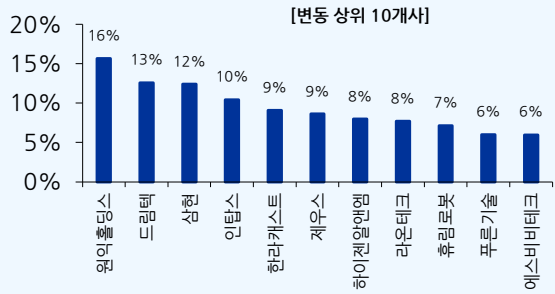


일본 공작기계 수출, 해외 AI 수요 폭발!
5월 +37%yoy 달성!

5월 수출액: 1,768억엔
해외 수출: +38%yoy (AI 수요)
AI 칩셋 & 휴머노이드 부품 제조

안녕하세요
로봇
데일리

중국발 휴머노이드 부품
향 수요 견조 (초가미)



로봇 주요 뉴스(06/09)

[국내]

- 과기부, 피지컬 AI 개발 사업 착수. 2년간 총 340억원
- 티로보틱스, 미·중·대만 유리기관 이송로봇 특허 신청
- 두산로보틱스 PRS 잔여 물량 210만주 전량 처분
- 씨메스로보틱스, 엔비디아 리셉션 참석

[해외]

- 일본 5월 공작기계 수출액, 전년비 37% 증가
- 스탠다드봇, 美 CAPA 확장 위해 2억달러 투자 유치
- 피규어 AI, 5월 휴머노이드 생산 월 250대 도달
- 中 유비테크 휴머노이드, 6일만에 2,110대 예약 돌파

Zoom-In

[5월 공작기계 수출]

- 5월 일본 공작기계 수출액은 1,768억엔으로 전년비 37% 증가. 해외 수출은 +38%yoy를 기록. 5월은 통상 비수기이나, 해외에서 AI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 일본 초가미는 중국발 휴머노이드 부품 향 수요도 견조했다고 밝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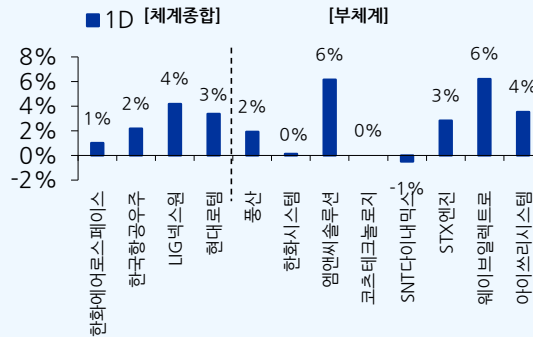
최근 미-이란 갈등 고조 속, 트럼프 “협상 성과 기대” 언급!

4월 8일 휴전 발효 후 처음 이스라엘-이란 상호 공격

이란 종전 협상 2~3일 내 가시적 성과 가능

안녕하세요
방산
데일리

미-이란 갈등 심화
협상 재개 및 성과 기대



방산 주요 뉴스(06/09)

[국내]

- 한화, '산안법 위반' 인정되면 1년간 방산 계약 못한다
- 호주 현지 제작 K-90이 최초로 포탄 사격 시험
- 한국·우루과이, 전투함 및 전투기 도입 전격 논의
- 빅텍, 22억 규모 '천광' 레이저 발전기 구성품 계약

[해외]

- 스위스, 프랑스·독일 합작 KNDS 무인화 포탑 선정
- 獨 8개사, 새로운 유럽 전투기 개발 구도 발표 예정
- 트럼프 "이란 협상 막판 단계. 2~3일 내 타결 기대"

Zoom-In

[미국-이란, 2~3일내 휴전하나]

-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 받으며(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)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행 위기를 맞이했으나,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2~3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.

한화엔진 사업 재편 추진!
AM 분리 & 방산 기능 강화!

애프터마켓(AM) 사업

방산 기능 강화

고수익 AM 사업 분리
서비스 전문성 강화

한화엔진

군함·발전용 엔진 사업 강화
방산 시너지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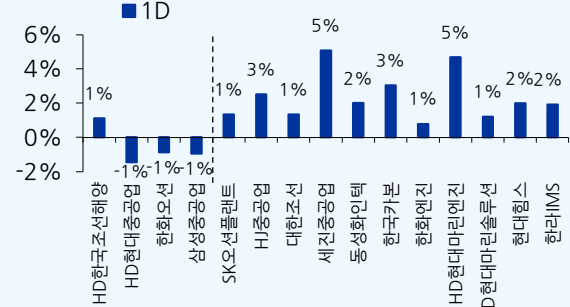
한화오션

발전 강화

제철·간헐적 동력기
조선(내부 건조) 등
시너지 창출 목표

한화아어로스페이스

안녕하세요
조선
데일리



조선 주요 뉴스(06/09)

[국내]

- 인도 산업부장관, HD현대중 울산조선소 찾아 협력
- 韓조선, 지난달 전세계 선박 44% 수주
- 한화엔진, AM 떼고 방산 붙인다

[해외]

- TKMS, 캐나다 잠수함 결정 앞두고 대규모 채용 돌입
- TKMS, 캐나다 입찰서 '가짜 우주공항' 논란 파문
- CMA CGM, 형리 중공업에 컨테이너선 8척 발주

Zoom-In

[한화엔진 재편 가능성]

- 한화엔진 사업 재편 추진 보도, 고수익 애프터마켓(AM) 사업을 분리하고, 군함·발전용 엔진 등 방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. 한화오션의 부품·장비 공급 기자재 사업과 한화아어로스페이스의 엔진·추진 기능을 동사로 이관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.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동 자료는 당시의 재무정보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. 동 자료는 당시의 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외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합당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